

러시아 최신 T-80U, BMP-3 등 도입

— 차관 상환분 대체로 육군에서 시험후 전력화 계획



일각에서 방호능력 등 성능 결함이 지적되기도 하는 T-80U MBT

이중 T-80U전차는 지난 90년초부터 실전배치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첨단주력전차로 북한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러시아 이외의 나라에서도 도입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 전차는 자동사격통제방식으로 승무원 3명이 탑승하며 주포구경이 1백25mm로 적전차 파괴능력이 탁월한데다 주포에서도 유효 사거리 5km의 유도미사일을 발사, 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등 대

전차 및 대헬기전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T-62전차를 개량한 주포 1백15mm의 '천마'호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보병전투차량인 BMP-3는 18.7톤의 무게에 주포가 1백mm 강선포로 사실상 경전차급으로 분류되는데 탄약 자동 장전 장치와 레이저유도미사일 발사능력을 갖고 있고, 수륙양용으로 승무원을 포함, 10명을 탑승시킬 수 있다.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갑차는 12.7mm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으며 10명 가량이 탑승할 수 있고 주한 미군의 브래들리장갑차는 대전차 미사일인 토우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BMP-2는 주포 구경이 30mm인 것으로 파악돼 있다.

이와함께 이글라(IGLA)는 유효사거리 5km로 저고도로 침투해오는 적 비행기에 대한 요격용으로 사용되는데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이 사용한 바 있다. METIS-M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의 사거리는 1.5km이다.

국방 부는 8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T-80U 전차, IGLA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 미화 1억5천만불(약1천2백억원) 상당의 러시아 방산물자를 도입키로 했다. 이들 물자는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제공한 14억7천만불의 경협차관 일부에 대한 상환 형식으로 당초 지난해말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들여올 방산물자는 최신식 전차인 T-80U 전차 1개 대대 분량(30여대), BMP-3 보병 전투차량 1개 대대(30여대), 휴대용 대공미사일 이글라(IGLA) 수백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METIS-M 수백발 등이다.

국방부는 장비 도입을 위해 이미 러시아에 교육생 30여명을 파견, 장비운영 교육을 완료했으며 후속 군수지원을 위해 로스보루체니에서 서울지사가 개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장비는 기계화부대 등에서 1년여동안 교육용으로 활용해 성능확인 시험을 거친 후 육군에 배치될 예정으로 전력 향상과 국내무기체계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